

# 해남군, 스마트한 농기계로 노동력 절감

### 자율주행·드론 등 첨단기술 투입...농촌 인력난 해소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작물 생산성 극대화 등 기대

해남군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농촌 인력 문제 해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 농기계 활용 노동력 절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해 노동력 절감 비재배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GPS 기반 직진 자율주행장치 보급, 중소규모형 발농업기계화 공동영농 확산, 청년농업인 노지 스마트영농기반 조성 등 총 17개소에 10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노동력 절감 비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드론을 활용해 약 20ha 면적에 비를 직접 파종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육묘 작업을 생략하기 때문에 기존 이앙 대비 노동력 85%, 경영비 83%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또 기존 직파 재배 시 문제가 됐던 불완전한 균평은 자율주행 균평 기술을 도입해 정밀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노동집약적인 발농사를 기계화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종·정식 작업 기계화 기술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인력에만 의존해 왔던 발작물 파종과 정식(모종 심기) 공정에 기계를 도입하면 노동력을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 가능한 GPS 기반 자율주행장치를 사용할 경우 로터리 작업 또는 비닐 파복 시 노동시간이 42%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 스마트영농기반 조성으로는 생육 기간에도 노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력으로 관수하지 않고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양 내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작물 성장에 최적인 토양조건을 유지하는 적정 물관리를 통해 가뭄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작물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사업은 필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보급해 해남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스마트 농기계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드론 직파.

사진제공=해남군청

## 강진, 인구 감소지역 대응계획 설문 주민 목소리 담아 인구 활력 밑그림

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 수립에 착수하며, 그 첫걸음으로 주민과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인구 활력 증진과 지역 발전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핵심 법적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강진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출·퇴근 근로자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전입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 선호도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함께 조사하여,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모바일 설문창으로 바로 연결되고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에도 홍보 포스터가 부착돼 있으며 강진군청 홈페이지에는 설문조사 접속 링크가 게시돼 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 영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버스 41대

영암군은 최근 영암군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반기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영암군과 영암경찰서가 함께 진행했으며, 지역 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영암군청소년수련관과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집 14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등 총 33개 시설의 통학버스 41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군은 현장에서 확인된 결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모습. 사진제공=영암군청

##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에 '스카이 워크' 개방

### 길이 46m·높이 16m 투명유리...다도해 360도 조망

완도군은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 워크와 잔디광장을 개방했다.

군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고 2019년부터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공사 착수, 올해 개방형 공원으로 단장을 완료했다.

스카이 워크는 길이 46m, 높이 16m 규모로 조성됐으며 바닥을 투명 유리로 제작해 마치 하늘을 걷는 듯 짜릿함을 느낄 수 있고, 다도해의 크고 작

은 섬들을 360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은 탁 트인 천연잔디광장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관광객들이 돛자리를 펴고 앉아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스카이 워크는 안전한 관람을 위해 당분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동반 출입은 제한된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진도, '찾아가는 건강버스'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 건강 돌봄 강화...보건료 서비스 원스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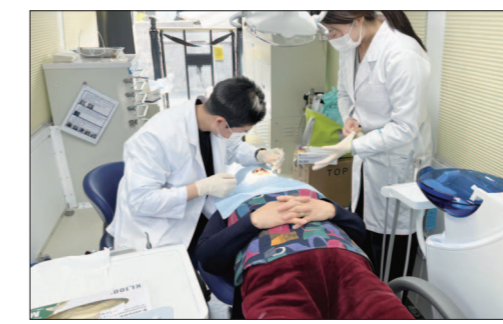
진도군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마을 전담 주치의제'와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하며, 주민 밀착형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마을 전담주치의제'는 한방과 치과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현재까지 누적 367개 마을에서 2만3323명을 검진하고 치료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도입한 '찾아가는 건강버스'에서는 한방과 치과 진료, 물리치료, 혈압과 혈당 등 기초 건강검사, 상담과 보건교육 등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하기 전에는 각 분야의 검진과 치료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주민이 서비스를 여러 차례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운영 이후에는 한 곳에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여러 의료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진도군은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도군청

있어 편리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 중심의 총체적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 컨벤션홀 임대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임대문의 : 062)370-7080**